



갭 이어는 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의 큰 딸인 말리아가 선택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AP)

# 남가주의 4년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한인 남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1년의 '갭 이어'를 가진 후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의대 공부가 워낙에 오래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라 여행 등을 다니면서 미리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파트타임으로 지역병원의 응급실(Emergency Room)에서 의사의 처방을 컴퓨터로 적는 일을 하면서 의사들이 응급상황에서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의대에 합격하기 전에 1년여 동안 실제로 의사가 하는 일을 지켜본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의과대학 1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이 남학생은 지금도 한달에 한번 정도 자신이 일했던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 현장과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지역 병원에서 직접 연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 '갭 이어' 증가 추세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아이비리그를 필두로 노스웨스턴 의대 등 엘리트 대학이 '갭 이어'를 학생들에게 장려한다. 하버드대는 아예 홈페이지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이 등록을 1년 미루고 여행 또는 특별한 활동 등을 하거나 다른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길 권장한다"며 "매년 80~110명의 학생들이 입학할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대입과 취업을 위한 준비가 이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1년여의 '타임 아웃'을 통해 "한발 물러나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시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익숙하게 받아온 주위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나 삶의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린스턴대와 노스캐롤라이나, 터프츠대 등은 입학 앞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본격적인 학문을 배우기에 앞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변혁적인 1년을 보낼 수 있는 독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갭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에서의 경험을 터득하고 개인의 성장을 느끼고자 '갭 이어'를 택한다는 응답자가 92%에 달했다. 85%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라고 답했고, 전통적인 학업 과정에서 잠시 쉬고 싶었다는 답도 81%나 나왔다.

'갭 이어'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들버리칼리지 입학허가처의 조사 결과 '갭 이어'를 사용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갭 이어'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적인 스타일인지 아니면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편안해하는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괜히 학교에 바로 입학하면 공부 잘 할 애를 오히려 '갭 이어'를 시킴으로써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이 점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 경비 문제도 생각해 본다

무조건 멀리만 간다고 능사가 아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멀리로 선교여행을 떠나도 좋지만 의외로 가까운 의사 오피스, 변호사 사무실, 파트타임 잡에서 자신에게 맞

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비영리 봉사기관 등에서 무료로 봉사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볼 만 하다. 인생은 사실 혼자 개척하는 것이다.

■ 가치관을 재정립해 본다

사실 고교 생활을 하면서 대입시에 치져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할레벌떡 대입에 골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이 될 수도 있다

젊음의 특권은 방향과 도전이다.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갈 수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파트타임이 됐든 인턴직이 됐든 그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 재미있고 또 다른 일을 하면 재미없는지 현장에서 겪어보는 경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하는 데

여행을 가서 삶의 다른 면을 볼 수도 있다.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 진학 혹은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오랜 기간 여유 있게 일상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친구들은 먼저 대학에 입학해서 1년을 끝냈는데 캠퍼스에 돌아가면 괜히 뒤지지 않나하는 걱정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인생의 깊이가 더해졌고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된다는 점에서 손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볼 수도 있다.

■ 갭 이어 프로그램들

▲갭 이어 컨설턴트 프로그램(internshipprograms.com)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혹은 직장 사이의 휴먼이나 안식년 기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언어연수 프로그램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에 직접 거주하면서 언어를 배운다. 대학 간에 상호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이왕이면 학점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환경보존 프로그램

열대림에서 환경보존 프로젝트 자원봉사를 해본다. 자신을 필요로 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 무료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타임아웃 협회 프로그램(wheretheyouheaded.com)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미국 및 해외 프로그램 중 맞는것을 선택할 수 있다.

(박홍률 기자)

다시 살인적인 경쟁이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 이 시점에서 자신의 대학 공부에 대한 가치를 견고하게 다져 놓지 않는다면 쉽게 지칠 수 있다.

대학·대학원 진학 1년 간 뒤로 미루고 여행·봉사 등 통해 삶의 경험 쌓는 시간 가치관 적립·공부 동기부여 장점 있지만 학업포기 등 개인성향 따라 '독' 될 수도

이보다 좋은 판단 기준이 없을 것이다. 또한 바로 대학에 들어가서 현장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했던 일을 대학에 다니면서도 지속함으로써 나중에 치열한 취업난에서 남들보다 경험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드문 사례이지만 명문 사립대에서 거절된 학생들이 때로는 '갭 이어'에서 의미 있게 보낸 활동이 입학자 평가에 도움이 된다. 하버드에서도 '갭 이어'를 의미있고 독특하게 보낸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갭 이어'가 손실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또한 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때로는 오지에

■ 취업 및 명문대 진학에 도움

Taekwondo and My Life



Aleema Haque

When I first thought of taekwondo, I always thought of people beating each other up and doing a whole lot of flips and constantly flying.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ever do it. It seemed like a sport for people much stronger than I. Now, as an (almost) black belt, I still can't believe that it's happening, but there's a slightly different picture in my head. Taekwondo has affected my life in many different ways. Not only has it taught me persistence and determination, but it has also made me confident and has taught me self control, and other lifelong lessons.

It has taught me persistence and determination because I've stuck with it since the summer of 6th grade. It started out as being some-

thing fun and exciting to do with my friends, but changed into being a passion of mine. I soon found myself going twice and then three times a week, practicing at home whenever I could. As I got closer to becoming a skunk belt, I became more and more involved with it. It's been almost 5 years since I started and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it. Taekwondo has also helped me with time management and figuring out what my priorities are. I soon got in the habit of coming home and immediately doing homework, so I can go to class and not have to worry about homework.

Taekwondo has also given me confidence. As I said earlier, when I started,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be a black belt. Even now, I can't believe it's happening! But back then, I was shy and scared that I was going to mess up. I believed that I was simply too small and weak to do break a board with my foot- let alone a concrete brick with my hand! I remember how anxious I was during my first test. When my name was called, I felt like throwing up. But I also remember how determined I was. I wanted that yellow-belt so badly. By the time I got up to the front, I was trembling with fear. When I saw the board,

I remember thinking that I could never break it. That it was impossible. Still, I knew I had to try. So, with all of my force and power, I kicked with every ounce of the power in me. My heart was louder than fireworks on New Year's Eve. I hesitantly looked at the board to see that it was snapped right down the middle! I was so shocked that I broke that board! After my first test, I realized that I can do this. It also taught me self control. After that, I became more serious about being a black belt (when I was a orange belt), I kept thinking about how when I do become one, I can get into all of these fights and win and how cool it'll be. I learned that I shouldn't use violence unless I absolutely have to.

The fasting was difficult. It was especially hard during lunch, when everyone was eating food and I wasn't able to. I drank a lot of juice and water in those three days. What I thought was interesting was the fact that I wasn't really hungry(for the most part), but I more so needed food. I needed to have it in my hands, I needed to chew and swallow. It was also something I needed when I felt really bored. I just wanted to eat, but didn't really need to. The meditation was interesting.

Meditation is all about finding inner peace and I guess I found something like that. I found, to my shock and surprise, inspiration. I guess it's what my hunger ridden body needed. Some inspiration. I found it in a way that, at the time seemed strange to me, but now makes perfect sense: music and book quotes. My life has pretty much been music and books, so it makes sense that in my time of need my heroes would be there to give me help.

At first, they were random songs, some I haven't heard in 5 or 6 years, and bits and pieces of books, as well as some memories. It became apparent by the 5th hour, however, that they meant something. Each memory I had was about a struggle I had overcome, some big, some small. Every quote was at the part of the book when a hardship occurred. Every song was about overcoming something. It gave me faith and motivation. I then started thinking about taekwondo and how that has taught me faith and motivation too. I ended the meditation with all of the memories of taekwondo, everything that I had achieved, big or small. From breaking that first board, to using my training and walking away from a fight. From teaching kids how to

kick correctly to finally learning all of my forms.

Taekwondo has been apart of my life for about 5 years now. I love it and every involved. My life has greatly improved because I can now see how I can be used for greatness if I just try. It also taught me lifelong lessons that will stick with me. It taught me self control, persistence, determination. It also gave me confidence. Before taekwondo, I didn't think I could do anything.

Taekwondo helped me believe in myself. That I am strong. That I am powerful. That I don't need to prove anything to anyone, because I know I can do it. It also showed me that being powerful and strong does not mean that I should get into fist-fights or beat people up. Being strong and powerful means knowing when to walk away, knowing when to stand up against injustice and doing it using words, only resorting to punching and kicking when I absolutely have to, like in self defense.

I feel truly blessed and am so grateful to be training with OMAC and Master Kim. I look forward to becoming apart of the black belt family and helping others train. Master Kim has taught me so much and I am so thankful for him.